

“농심천심, 따뜻한 인삼 소비로 건강 더하다”

전북농협·전북인삼농협, 전북 인삼 판로 확대·소비 진작 위해 손 잡아

전북농협과 전북인삼농협이 지역 인삼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14일 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전북인삼 소비촉진 기념행사를 열고 수확철을 맞은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農心天心) -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아 농민의 정성과 소비자의 믿음을 연결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환 전북농협본부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변성섭 농협진안군지부장, 유경근 농협유통 전주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내방객들에게 전북 수삼의 품질과 효능을 소개했다. 이들은 인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 농산물이 지닌 건강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다.

행사장에서는 인삼 소비 확대를 상징하는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홍삼을 활용한 ‘홍맛밥’, 신선한 수삼샐러드 시식행사가 진행돼 고객들의 발

길을 사로잡았다. 따뜻한 한 그릇의 밥과 함께 전해진 ‘농심’의 의미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작거래장터 형태로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계속된다. 원삼류(몸통과 뿌리가 균형 있게 형성된 인삼)는 100g당 약 5,500

원, 난발류(자유로운 형태의 인삼)는 100g당 4,900원으로, 권장소비자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원하는 만큼 담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정환 전북농협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농부의 땀과 정성이 깃든 전북 인삼을 소비자에게 건강한 가치로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정신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도 “전북 인삼은 청정 환경에서 자라 품질과 효능이 뛰어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북 인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농가의 노력이 정당한 보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시즌2에 참가해 고창군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우수 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

디자인센터, 메가쇼 시즌2 홍보전

‘고창 공동브랜드’ 앞세워 지역 식품 경쟁력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가 지역 식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소비재 박람회에 출전한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시즌2’에 참가해 고창군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우수 식품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군을 비롯해 순창군·장수군·남원시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해 전북도를 대표하는 특산품과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군 공동브랜드 부스는 지역의 고유 이미지와 자원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스에는 고창 특화자원을 활용에 개발된 제품들이 집중 전시되며, ‘고창풍천장어식품’ △더웤은협동조합 △도담공장 등 지역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고창풍천장어식품’은 지역 대표 자원인 풍천장어를 활용한 초벌·양념구이, 장어탕, 장어볶음밥 등 간편식 라인업을 공개한다.

‘더웤은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장어홍삼보감’을 비롯해 국산 재료로 만든 국내 유일 포션형 생화차, 포도맛 배도라지 주스 ‘또또몽쥬씨’ 등 건강 음료 제품을 선보인다.

‘도담공장’은 직접 재배한 도라지와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홍도라지청,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카라멜 등을 전시해 고창 농산물의 품질과 정성을 강조한다.

/오상근기자·고창=김영식기자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롯데그룹이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며 민간부문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15년 한중 FTA 비준에 맞춰 설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촌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2017년부터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8년부터 13개 계열사가 꾸준히 기금 출연에 참여하며 농어촌 지역 재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제주 농가 비료 지원, 지역쌀 소비 촉진, 해양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재난위기가정과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경북·강원 지역 산불, 집중호우, 태풍 한파로 피해를 입은 3,500여 가구에 약 2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 피해 가정에는 약 10억 원 규모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2023년에도 롯데그룹은 수해, 산불,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재난위기가정에 구호키트 1,187 세트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인제군과 함께 ‘인제군 로컬푸드 Re-패키징 사업’을 추진,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낙찰하한을 상향해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해야”

중기중앙회, 제5차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가 이하의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가운데, 낙찰하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중소기업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공공조달 물품구매 분야의 낙찰하한을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해 8월 학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출범한 이후, 예산 절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공공조달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계약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을이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제도는 최저가 입찰 업체부터 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예정가격 대비 제시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의미하는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덤핑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오래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 분야는 최근까지 낙찰하한율이 지속 상향돼온 반면, 물품 구매 분야는 2017년 한 차례(80.49%→84.24%) 조정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며 “특히 고시금액 이상 계약은 여전히 80.49%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달시장 참여 기업들의



제조원가율은 2020년 85.33%에서 올해 88.58%까지 오르는 등 부담이 커졌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19%에서 5.38%로 감소했다”며 “올해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87~88%까지 상향된 만큼 물품 구매계약 역시 동일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납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2025 전북혁신 레트로 가요제’ 참가자 모집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980~19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음악 축제를 연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분사 새물라힐에서 열리는 ‘2025 전북혁신 레트로 가요제’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요제는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800 가요를 테마로 한 주민

참여형 행사로, 음악을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특별 초대 가수로는 이범화과 원미연이 무대에 오르며, 그 시절 음악을 기억하는 세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1980~1990년대 대중가요를 부른 영상을 제출하면 예선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도 접수 가능해 문턱

을 낮췄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개인)은 본선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된다.

본선 참가자에게는 대상과 최우수상 등 다양한 상이 주어지며, 참가자 전원에게 총 3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관객이 직접 사연과 희망곡을 신청하는 ‘내 인생 라떼’ 코너도 마련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총력

농진청, ‘겨울철 기상 위험 예측 협의회’ 열어

농촌진흥청이 지난 13일 본청 2층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기상 위험 예측 협의회’를 열고 올겨울 다칠 수 있는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의 분야별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과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앞서 농업기상재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지 월동작물의 생육 상태를 비롯해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기습 폭설



이나 급격한 기온 하강 시 농작물 회복 관리, 재배 기술 시연관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상청은 올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0.4℃)과 비슷하고 강수량 또한 대체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적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